



줌(Zoom)으로 가 본 일본

도야마현(富山県) 도야마시(富山市)

지구촌이 신종코로나 대유행을 거의 동시에 겪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계와 학계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워크숍/학회가 일상이 된 학기를 세 번째로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비대면 활동의 교육적 효율성과 의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I actually like teaching on Zoom”이라는 칼럼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¹⁾ 요지는 비대면 수업에서 ‘따뜻함’은 덜 느낄 수 있지만, 더 ‘많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에는 나도 해외에서 행해지는 워크숍 또는 학술회의를 Zoom을 통해 가끔 참여하고 있다. 시차가 너무 나지 않는 곳에서 열리는 모임을 중심으로, 지면으로만 알고 있던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학회를 선호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Zoom으로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를 배경으로 한 모임에 참석하였다. 아이패드에서 설치한 Zoom 앱을 통해 학회에 접속하면서, 동시에 데스크톱 PC의 Google Map을 통해 도야마를 방문하였다. 지난 수년간 따라다니던 전쟁유적 보존운동 활동 단체 중의 하나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연례 연구집회이다. 네트워크는 매년 전쟁유적 보존운동과 관련된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 전국적인 집회를 갖고, 현지 답사를 기획하는 시민단체이다.²⁾ 2020년에는 신종코로나 대유행으로 집회를 갖지 못하고, 올해는 도야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제13회 집회를 가진 것이다.

1) The New York Times. 2021.02.15. Opinion "I Actually Like Teaching on Zoom."

<https://www.nytimes.com/2021/02/15/opinion/zoom-video-school-teaching.html> (2021년 2월 18일 접속)

2)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강제동원”과 관련된 전쟁유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전쟁유적보존전국네트워크”는 보다 넓은 범위의 전쟁유적 보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Jung-Sun Han, “The Heritage of Resentment and Shame in Postwar Japan” (2017) (<https://apjjf.org/2017/01/Han.html>) 참조.

1부에서는 도야마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2부에서는 그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도야마 지역의 역사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풀어가는 지역 내 현지답사 안내 책자인 『평화와 인권 도야마 가이드(平和と人権とやまガイド)』(2011)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이 책자의 개정판을 준비 중인데, 신종코로나 대유행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도야마현은 표고 3,000미터의 눈이 많고 험준한 산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속이 빠른 강들이 많은 곳으로, 예로부터 치수와 하천개수가 중요한 과제인 지역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치수사업을 통해 1935년경에는 수력발전으로 전국 최대의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전국 6위의 군수공업 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군수공업도시로의 성장 이면에는 1945년 8월 1일과 2일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가 파괴된 어두운 역사도 있다. 도야마의 또 다른 어두운 역사이며, 바로 이 곳에서 집회를 기획한 이유는 전시기 군수공업이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외국인 포로 노동력을 (강제)동원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도야마현이 일본의 최대 전력생산지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자원이 구로베강(黒部川)이다. 나가노현과 경계를 이루는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구로베강은 수량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높낮이의 차가 커서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강이어서 1910년대부터 수력자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조선인노동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관서지역에서의 전시 군사물자 생산을 위한 동력 개발을 위해 1936년에 착공한 구로베강 제3발전소(黒部川第三発電所) (1940년 완공) 댐 공사(이하 黒三 공사)는 산악지대 협곡에서 수도공사, 자재운반용터널공사 등과 같은 고난도의 공사가 많았다. “구로베 공사 중에는 부상자가 없다”고 이야기되곤 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위험해서 모두 떨어져 죽어서” 부상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공사에서 작업한 조선인노동자 김태경의 흔적을 더듬어 온 “코리아 프로젝트, 도야마” 소속 회원에 의하면 黒三공사는 위험한 공사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고임금으로 노동자를 최대한 모집하려고 했으며, 임금 차원에서는 일본인과 “반도인”의 구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아주 위험한 “(암반의 온도가 100도를 넘는) 고열수도공사”와 같은 작업에 조선인노동자가 집중 투입되었다. 1900년 제주도 출생의 김태경은 1920년대부터 일본에서 발전소 공사에 종사한 노동자였다. 그는 도야마현 조선인노동자 단체를 결성하여 노동운동에도 관여하여 한때 검거되기도 하였고, 출소한 후에는 黒三의 고열수도공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金田組”를 꾸릴 정도로 건설 현장에서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제국 패망 이후 제주도로 돌아가서 건설 회사를 차리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주 4.3 사건 때에는 친척들은 많이 사망한 것 같으나, 김태경은 당시 “친일파”로 찍혀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보이며, 1965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표자는 김태경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노동자의 사례를 찾던 중에 도야마현과 제주도를 잇는 제국과 해방공간 속에서 “친일파”로 낙인찍히게 되는 굴곡진 노동자의 삶을 마주치게 되었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한층 더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도야마현에는 강제동원된 조선인노동자도 있었다. 기계 공구를 생산하는 회사로 1928년 설립한 후지코시(不二越)는 전시기에 고도성장하면서 1944년 군수회사로 지정되었고, 1945년경에는 전국 18곳에 공장을 짓고 약 4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 중 약 1/4에 해당하는 노동력은 징용공, 학생, 그리고 여자근로정신대로 충원되었다. 전시기에 징용공과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3인의 한국인 피해자는 1992년에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전시동원과 관련된 지난한 법정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인 “후지코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연학회(不二越 強制連行・強制労働訴訟を支援する北陸連絡会, 이하 연학회)”가 마지막 지역 활동 보고를 맡았다. 이 연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법정 투쟁을 지원하는 시민운동은 북쪽으로 접해 있는 이시카와현(石川県)의 나나오시(七尾市)로 강제동원된 중국인 피해자 유족과의 교류 속에서 지역을 넘어, 그리고 한국의 시민단체와 교류하면서 국경을 넘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1〉
구구리 시설

2부에서는 도야마현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에서 가미오카광산(神岡鉱山) 노동자 유골의 유족 찾기,” “조세이(長生)탄광에 관한 새로운 증언,” “오사카 공습 조선인 희생자 유가족은 어떻게 살았는가/ 텐리(天理)시 구 야나기모토(柳本) 비행장 부지 설명판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이점이 문제다,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있었다. 2020년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제외하고, 위 발표 주제와 관련된 곳은 모두 지난 수년간 현지답사를 간 곳이다. 2부에 참석하면서, 현장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고, 또 낯익은 활동가들이 발표하여서 반가웠다. 특히 가미오카광산 노동자 유골 문제에 관한 발표를 한 시모지마 요시스케(下島義輔)는 기후현(岐阜県)에 위치한 구구리(久々利) 지하공장 터를 2017년 내게 안내해준 활동가이다.

기후현은 전시기 군수공장이 집중되어 있던 나고야에서 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여, 미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한 군수공장의 소개(疏開)공장이 산재했던 현이다. 이 중 하나인 구구리 지하공장 터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면서 비행기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 전쟁 말기에 판 지하공장 중의 하나로서 38개의 터널이 연결되어 있고, 전체 길이는 7,015 미터에 이른다. 이 지하 시설은 1945년 11월 3일에 미 점령군이 조사한 곳인데, “일본에서 찾아낸 지하터널 중에서도 상태가 나은 곳이다. 터널들은 건조하고, 잘 배치되어 있으며, 평평한 바닥을 갖추었고, 다른 곳보다 넓어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 이러한 지하터널 공사 또는 근처 탄광에는 “반도인”이 많이 동원되곤 하였는데, 구구리도 예외가 아니었고, 일본제국이 패망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노동자들의 유골이 기후현 내 여러 절에 흩어져 있다.

시모지마는 약 15년 전부터 기후현 가미오카광산 주변의 절들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는 조선인노동자의 유골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였다. 국철 직원이었던 그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80년대 재일조선인의 지문날인거부 운동 등을 지원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랜 기간의 조사 끝에 기후현 내 료젠지(兩全寺)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인노동자 유골의 신원을 밝혀 한국의 유족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⁴⁾ 시모지마는 한국어 공부를 위해 2019년 한국에 1년 간 체류하면서, 또 다른 조선인노동자의 유골을 반환하기 위해 유족을 찾았으나 결국 생존하는 유족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돌아갈 유족이 없는 조선인노동자 유골을 어떻게 관리해야할 지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특히 지방의 절에는 “무연(無緣)의 유골”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무연의 유골들을 외국인 노동자의 유골과 합사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조선인노동자의 유골이 “무연의 유골”과 함께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Zoom으로 방문한 도야마현에서 확인한 것은 제국주의와 전쟁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라져간 이들을 윤리적으로 기억하려는 시민사회 운동이다.⁵⁾ 윤리적 기억이 상기하는 대상은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주어진 ‘우리’와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그들’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윤리적 기억은 ‘우리’를, ‘우리’ 안의 희생자 또는 저항자를, 소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윤리적 기억은 닫힌 윤리적 기억이라 할 수 있고, 닫힌 윤리적 기억은 민족주의와 친화성이 높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억 행위이다. 그러나 도야마현에서 전개된 기억하기는 ‘그들’을 상기하고 공인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열린 윤리적 기억하기라고 할 수 있다. 열린 윤리적 기억하기는 동시에 정치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3)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 *Underground Production of Japanese Aircraft*, Report No. XX (Aircraft Division, March 1947), p.34.

4) 2017년 6월 28일 인터뷰 및 「強制労働の足跡をたどる, 5: 現場へ! 滞る遺骨返還 向き合いたい」, 『朝日新聞』 2020.12.11. 참조. 신문기사를 공유해준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의 飛多雄一관장에게 감사한다.

5) 윤리적 기억과 관련해서는, Avishai Margalit, *The Ethics of Mem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이와 같은 기억행위는 ‘그들’을 소환함으로써 ‘우리’를 규정하는 관계의 범위와 성격을 재규정, 재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⁶⁾ ‘우리’와 ‘그들’의 관계가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기억하기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될 때, 비로소 화해, 용서, 그리고 망각을 동력으로 한 한일관계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6) ‘그들’에 대한 윤리적 기억과 관련해서는, Viet Thanh Nguyen, *Nothing Ever Dies: Vietnam and the Memory of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pp.47-70.



한정선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